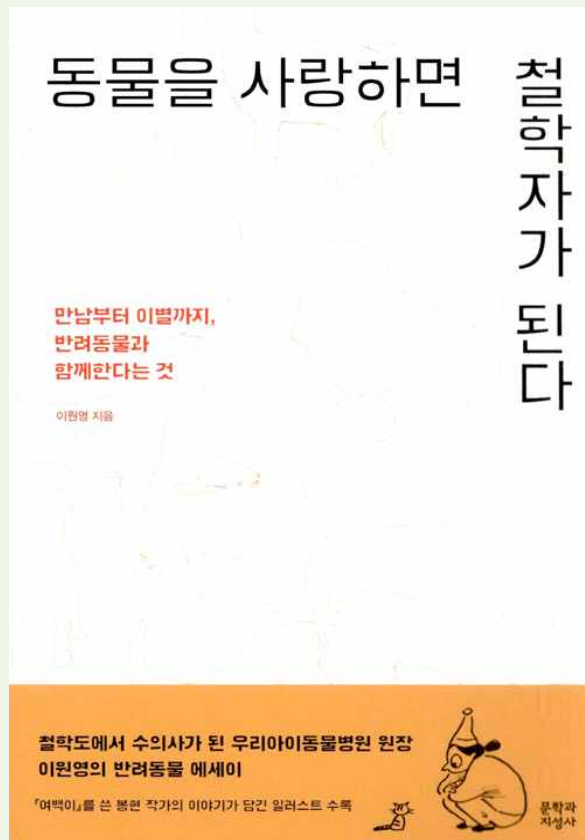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 3학년)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이원영 글, 봉현 그림 / 문학과지성사 / 196쪽

중학교 3학년 반 번

이름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즐겁게 책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독서에 대한 다음 명언을 따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W. 워즈워스





독서 활동지 차례

	독서 활동 내용	페이지
독서 준비	책의 구성 살펴보기-요모조모 살펴요!	4
독서 중	낱말 뜻을 파악하며 읽기	6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7~8
	내용을 분석하며 읽기	9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10
독서 후	표현하기	12~13
	토론하기	14~15
	동물을 사랑하면 000가 된다	16
	부록 만들기	17
정리하기	책 평가하기, 독서 활동 점검하기	19
	마음에 남은 문장 미니 북 만들기	20

독서 준비





독서 준비

■ 책의 구성 살펴보기 - 요모조모 살펴요!

1. 책의 제목과 앞표지에 그려진 그림의 느낌을 적어보세요.

2. 앞표지에 적힌 글은 어떤 인상을 주나요?

3. 다음은 뒤표지의 글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추천받을 사람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개와 고양이는 행복으로 가는 버튼이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에스컬레이터다.
동물을 사랑하면 누구나 행복한 철학자가 된다.”

진지한 철학도에서 수의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은 개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

반려동물과 같이 살게 되었다면 좋은 사료나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만큼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책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짚어낸다.

폭넓고 깊이 있게 사유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를 ‘철학적’이라고 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그런 사고를 하는 데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다 보면 나 아닌 다른 존재, 내 주변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독서 중





독서 중

▣ 낱말의 뜻을 파악하며 읽기

1.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pet’, 즉 장난감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companion animal’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2. 다음은 고양이의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찾아 연결해보세요.

① 퍼링

•

•

㉠ 날벌레나 새를 보고 꺾꺾 대며 잡으려는 행동

② 사이드 스텝

•

•

㉡ 고양이가 ‘골골’거리거나 ‘갸르릉’거리는 소리

③ 채터링(처핑)

•

•

㉢ 앞발로 ‘꼭꼭’ 누르는 행동

④ 울 서킹

•

•

㉣ 아치 형태로 등을 구부리고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

⑤ 캣 니딩

•

•

㉤ ‘츄츄’거리며 물건이나 이불을 빠는 행동



독서 중

▣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1~2)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과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시작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사업이나 등산이라면 준비가 필수적이지만, 여행이나 연애라면 글썄. 어느 편이든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일, 개,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일은 어떨까? …(중략)… 처음에 준비가 안 되었다 해도 차차 필요한 것을 갖춰 가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계획보다는 대응! 물론 원칙을 알고 준비를 하면 대응이 훨씬 쉬울 수는 있으나, 핵심은 적절한 대응에 있다.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혹은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해주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다.

1. ㉠을 읽은 뒤, 적절한 반응을 한 사람을 골라보세요.

- ① 연지 : 전용 사료를 잘 먹지 않으면, 다른 사료로 즉시 바꿔주자.
- ② 혜아 :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산책은 반드시 시켜야 해.
- ③ 소미 : 바쁘더라도 사료는 꼭 시간 맞춰서 주자.
- ④ 마운 :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게 금속이나 끈이 달린 장난감을 주자.

2. 다음 문항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의 체크 리스트입니다. 빈칸에 O, X를 표시해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울 때의 체크 리스트	O, X
1) 제때 백신, 구충, 중성화, 스케일링, 정기검진 하기	
2) 간식을 사료보다 더 주기	
3) 별 좋은 날 개와 흠을 밟으며 평지 산책하기	
4) 고양이를 낫선 고양이와 곧바로 대면시키기	
5) 개 산책 시 질질 끌려다니거나, 옆이나 뒤에서 따라오도록 통제하지 않기	
6) 볼 만져주기, 싫어하지 않는다면 많이 쓰다듬어주기	



독서 중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3~4)

(가) 우리가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틀이 아니라, 지배-예속의 관계냐 이해-공존의 관계냐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낳고 '내가 낳았고,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내 새끼를, 내가 맘대로 때리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는데, 당신들이 뭐 참견인가?'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대하면, 법의 처벌을 받거나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 ㉠어째서 그 고려의 대상이 꼭 인간으로 한정되어야 할까?

(나) '내 삶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측은지심 때문에 내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달랐을 뿐이다. 길냥이(길고양이)를 구조하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3. 다음 중 (가)의 ㉠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생존의 기본 조건을 제공한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② 반려동물로 하여금 썰매를 끌게 하면 안 된다.
- ③ 반려동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도 무방하다.
- ④ 보호자인 내가 건강해야 반려동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 ⑤ 유기묘나 유기견을 데려올 때, 현실적인 상황보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4. (나)의 본문에서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서 중

▣ 내용을 분석하며 읽기

※ 다음은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사격을 할 때는 총이 겨냥한 대로 제대로 나가는지, 그 기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매우 멀리 나가기 때문에 총의 미세한 변화가 목표 지점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시험 사격을 통해 상하좌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이것을 총의 ㉠'영점조절'이라고 한다. 아무리 조정해도 뒤틀린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목표를 정조준하는 대신, 틀어진 것을 감안하여 약간 오조준해서 목표에 명중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평상시 ㉡총의 관리와 사격 전 영점조절은 ㉢사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오조준하게 되지만 이것은 임시변통일 뿐이다. 이쪽저쪽 한도 끝도 없는 오조준으로 ㉤목표에 명중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관리가 안 되어 더 이상 총이라고 할 수 없는 너덜거리는 고물 상태라면, 차라리 돌을 던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 윗글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 관계 맺기 과정을 사격이라는 스포츠에 비유해서술한 글입니다. ㉠~㉥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영점조절	㉡총의 관리	㉢사격	㉣오조준	㉤목표에 명중

2.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 관계 맺기 과정에서 ㉣의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서 중

▣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1.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려동물과 함께한 적이 있나요?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혹은 아직 경험이 없다면 예비 보호자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동행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2.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는 수의사인 저자가 경험했던 반려동물들과 보호자의 사례 모음집입니다. 이 책에 보태도 될 만한 사례를 찾아 적어보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사례	정보의 출처

독서 후





독서 후

▣ 표현하기

※ 다음은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에 실린 일러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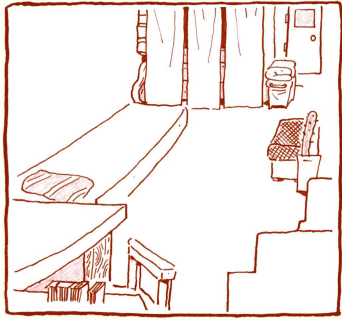
1. 위의 장면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첫 만남을 그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을 다음 빈칸에 그려보세요.(키우지는 못했지만 애정을 느꼈던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을 그려도 됩니다.)

우리의 첫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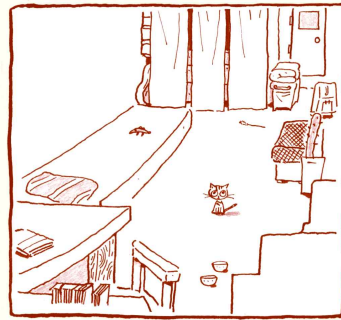


독서 후

※ 다음은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에 실린 일러스트입니다.



내 방은
늘 조용하고 쓸쓸했지.
나뿐이었어.



이젠,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방이 따뜻해졌어.

2. 위의 장면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공존하는 생활을 담은 일러스트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변한 여러분의 집 풍경을 다음 빈칸에 그려보세요.(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집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그려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풍경



독서 후

▣ 토론하기

※ 다음은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의 본문 일부입니다.

별이를 구조한 달래 보호자들과 을지로 아저씨의 길냥이에 대한 생각과 애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표현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관계의 틀을 지켰으나, 한 마리만 살릴 수 있었다. 후자는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다소 강요하며 일반적인 일 처리 방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였지만, 여러 마리를 살릴 수 있었다. 가치의 우선순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한계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인지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1. 윗글은 유기묘 구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나누는 기준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많은 유기묘를 구하되 책임을 무리하게 전가할 것인가, 한 마리의 유기묘를 구하되 홀로 책임질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위의 두 가지 방식을 어떻게 절충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보세요.

2. 무리하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는 비단 윗글에 제기된 유기묘의 경우에만 고민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윗글에서 제시된 ‘별이를 구조한 달래 보호자들’ vs ‘을지로 아저씨’의 입장을 유기묘가 아닌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으로 확장하여 생각한 뒤 각자 지지하는 입장을 골라 토론해보세요.



독서 후

3. 2번에서 나눈 설득의 대화를 다음 표에 정리해보세요.

무리하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구조	VS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수의 생명을 구조
----------------------	----	---------------------------

나의 입장은?

무리하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구조
친구들의 근거 :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수의 생명을 구조
친구들의 근거 :

4. 토론하기를 마친 후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독서 후

▣ 동물을 사랑하면 000가 된다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의 작가는 수의사가 되기 이전에 철학을 공부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로서의 세계관과 수의사로서의 세계관이 더해져 반려동물에 대한 철학서를 쓴 것인데요. 이처럼 동물을 사랑하면 화가, 음악가, 요리사, 수학자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요리, 수학, 스포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가치관)과 반려동물에 대한 철학(가치관)을 더해 새로운 철학서를 기획해보세요.

기 획 서



독서 후

▣ 부록 만들기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에서는 반려동물 중 주로 개와 고양이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반려동물의 경우를 다룬 부록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자료를 조사하여 부록 페이지를 꾸며보세요.

정리하기





정리하기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책 평가하기

1) 이 책에 별점은 몇 점을 줄 것인지 점수만큼 색칠해보세요. (10개가 만점)



2)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에서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의 독서 활동 점검하기

1) 자신의 독서 활동을 돌아보며 잘한 만큼 색칠해보세요. (5개가 만점)

·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샅폈나요?



· 책을 즐겁게 능동적으로 읽었나요?



· 읽기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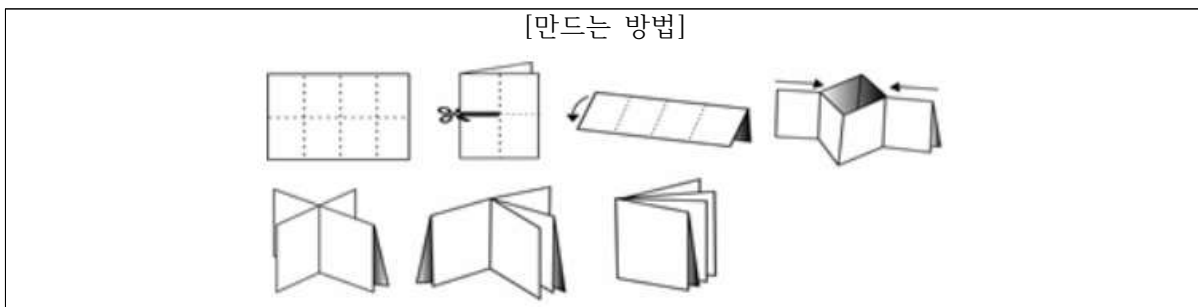
2) 이 책의 독서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정리하기

▣ 마음에 남은 문장 미니 북 만들기

※ 아래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 8쪽짜리 미니 북을 만들어봅시다. 미니 북의 각 쪽에는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를 읽고 나서, 마음에 남은 문장을 골라 책을 보고 베껴 써보세요.



* 점선은 접고 실선은 가위로 오릅니다.

6쪽 : 본문⑤	5쪽 : 본문④
7쪽 : 본문⑥	4쪽 : 본문③
8쪽 : 뒤표지	3쪽 : 본문②
1쪽 : 앞표지	2쪽 : 본문①

입시와 경쟁의 단단한 교육 현실 속에서 미래 교육의 싹을
틔워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응원하는 작가들의 메시지

*

“선생님들이 한 권 읽기를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혼란과 의문으로
머리가 벌벌 끊게끔 만들어야
세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김 훈

*

“정답을 가르쳐 왔던 학교가,
책을 통해 정답 외에 다른 답들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즐거운 경험이자 시도이며,
이를 통해 교육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 은희경

*

“여러분 각자가 항상 배낭에
책 한 권을 넣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 Gabriel Garcia Marquez



문학과지성사